



광주 일자리 박람회 뜨거운 구직 행렬

27일 광주시가 주최한 '2024 with 광주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한 취업준비생들이 면접에 앞서 이미지메이킹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날 진행된 일자리박람회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 소재 중견·중소기업 85개사가 참여했으며,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 확대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관련기사 9면>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군공항 이전, 3자 대면 '주목'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관련 3단체장 다음달 만나 해결책 논의
광주시 획기적 대책·전남도 적극 중재·무안군 전향적 자세 관건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의 당사자인 광주시와 무안군, 전남도 단체장들이 오는 7월 중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만나기로 하면서 지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지역의 난제를 풀기 위해 이들 단체장들이 너무도 크게 벌어진 의견 차를 좁히면서 새로운 대안을 놓고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무안군의 군공항 이전 반대 의지가 여전히 확고해 광주시가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지 못하면 자칫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무조건 반대 의사만 밝히고 있는 무안군이 보다 현실적으로 소용 대책과 지원 방안을 요청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와 전남 서부권의 미래를 좌우할 지역 최대 현안인 만큼 당사자인 광주시와 무안군, 이를 중재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전남도가 작은 성과라도 내기 위해 사전 협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지역을 넘어선 광역 현안을 가진 단체장의 경우 책임감을 갖고 수시로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성숙한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 각계의 주장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7월중에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주제로 논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들 3곳 단체

장이 만난 것은 민선 7기인 지난 2018년 8월 이후 6년여만이다. 당시 광주시는 민간공항을 2021년 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협약을 전남도, 무안군과 체결했다가 파기했으며, 민간·군공항 이전 협의도 완전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2007년 11월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이 17년여 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전남도가 그 대책으로 광주의 민간·군공항 동시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민선 8기 들어 전남도가 무안군 설득에 나서고 광주시에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요청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면서 다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전남도는 광주시에 기존 지원 방안보다 더 큰 규모로, 구체적이며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조례 및 기금 설치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있다. 무안군에는 현실적으로 군·민간 공항을 분리 이전할 수 없고, 군·민간 공항 동시 이전이 무안을 공항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면서 요구·제안을 통해 논의를 이끌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회발전 특구에서 무안항공특화산단(무안 MRO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항공중비대단지 제외된 것

도 현재 무안국제공항 수준에서 관련 기업 유치, 기반시설 추가 설치 등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무안군, 전남 서남권의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군·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통해 지역 및 광역, 초광역 항공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군·민간공항 이전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공항 도시 무안 비전도론회'도 3자 회동 이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시장은 지난 25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전남 입장에서 민간·군공항 이전 관련 지원 조례, 플랜B 발안 자체, 추가 지원금 등에 대한 바람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3가지 모두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조례를 즉각 만들고, 플랜B 발안에 오해가 있다면 해명하겠다. 지원금도 1조원이라고 표현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보강책을 구체화하면 하겠다. 이 모든 내용을 3자가 만나면 논의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또 "더 나아가 군공항 이전은 소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 소음 관련 토론회와 검증단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인 기관의 여론조사도 수차례 걸쳐서 했으면 한다"면서 "특히 공항도시 무안을 키우는 것은 광주·전남 메가시티의 첫 발이기도 하고 첫 관문을 여는 것으로, 단순히 무안만을 위한 길이 아닌 상생발전을 위한 통 큰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존 인천공항, 김해공항에 이어 가덕도신공항, 새만금공항 등의 개항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앞으로 2~3년 내에 무안국제공항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다"면서 "군공항을 넘겨야 하는 광주시는 무안군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하고, 무안군은 당장 지역 미래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이를 계기로 지역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바이오 특화 단지 화순에 유치 성공

국가전략산업, 20여년 노력 성과
73만평 규모 백신·면역 치료단지
김영록 지사 "바이오 중심 될 것"

화순에 2.4㎢(73만평)의 대규모 첨단 백신·면역치료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지난 2002년부터 전남바이오진흥원의 전신인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을 시작으로, 바이오 전문 기관·대학병원·지원시설 등을 하나씩 설치해 온 노력을 22년 만에 정부가 인정해준 것이다. 전남도는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지금까지 화순이 유치하지 못한 백신·면역 관련 세계적인 대기업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성장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도는 27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전남도 화순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화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백신, 면역, 헬스케어, 미생물 등에 대해 전임상-임상-인증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관련 전문기관으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헬스케어연구소·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동물대체시험센터,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다, 개방형의료혁신센터, 바이오헬스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등이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환영문을 내고 "전남도가 미래 첨단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바이오산업과 전·후방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1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남도는 이번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도 이뤄내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러스터로 지역 산업 혁신을 이끌 계획이다. 김 지사와 윤호열 전남바이오진흥원장은 지난 2월 세계적 바이오 기업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마셜 라그드와 서울에서 회동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한 뒤 백신·면역치료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헬스케어와 생명 과학 분야 분석기기 및 실험장비 제조와 기술서비스를 하는 세계적 과학기업인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의 화순 투자의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한편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인천(경기(시흥)), 강원(춘천, 홍천), 대전(유성), 경북(안동, 포항) 등 총 5개 지역이 지정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장맛비 '오락가락'...주말 10~50mm 내린다

장마전선이 오르내리면서 주말부터 광주·전남에 장맛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8일 오전까지 전남 남해안에 걸쳐있던 장마전선이 남하했다가 29일 북상해 다음주 내내 광주·전남 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27일 예보했다. 28일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요일인 29일

늦은 오후부터는 저기압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0~50mm의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겠다. 장맛비는 30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강한 남서류가 부딪히는 남해안과 서해안 인근 지역에는 강수량 100mm 이상, 시간당 30~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제 69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수상자·수상작품·심사평 ▶14·15·16면



당신이 찾던 럭셔리 미래

The new EQS SUV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월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임충역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S 450 4MATIC SUV (5인승)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3.6/ 도심: 3.7, 고속도로: 3.5 1회 충전거리(km): 459, 공차중량(kg): 2850, 배터리 용량(kWh): 107.1
 EQS 580 4MATIC SUV (5인승)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3.5/ 도심: 3.6, 고속도로: 3.4 1회 충전거리(km): 447, 공차중량(kg): 2890, 배터리 용량(kWh): 107.1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